

2015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하나님의 건축의 일

메시지 6
상호 거처

성경: 요 1:14, 14:1-6, 20, 23, 15:4

- I.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 안으로 오시고 사람을 그분 자신 안으로 이끄셨는지를 계시한다 — 요 1:14, 14:6, 20.
 - A. 그리스도께서 육체되심을 통하여 오신 것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끄신 것이었다 — 요 1:14.
 - B.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가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기 위한 것이었다 — 요 14:2-3, 6, 20.
- II.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가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오신 것은 믿는 이들을 아버지 안으로 이끄시기 위한 것임을 본다.
 - A. 주 예수님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 곧 아버지 자신께로 가셨다 — 요 14:12, 28.
 - B.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셨으며 그분의 의도는 그분의 제자들을 아버지의 신성한 인격 안으로 이끄시는 것이었다 — 요 14:5-6, 12, 20.
 - 1. 주님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 육체되심에 의해 아버지로부터 오셨고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 아버지께로 가셨다 — 요 1:14, 14:20.
 - 2. 그분이 가신 길은 죽음과 부활에 의한 것이었고 그분이 가신 목적은 사람을 아버지 안으로 이끄시기 위한 것이었다 — 요 14:6.
 - C. 2절에서 ‘내가 가면’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시기 위해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려고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실 것임을 의미한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언급된 교회의 건축이다.
- III. 요한복음 14장 2절에 있는 “나의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 A. 2장 16절에서 ‘나의 아버지 집’은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을 가리킨다. 성전은 예수님의 몸의 예표 혹은 모형이며 그 몸은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확대되었다 — 요 2:19-22.
 - B. 14장 2절에 있는 ‘나의 아버지 집’은 천당이 아니라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리킨다.
 - C.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계시가 완전히 발전된다 — 딤후전 3:15-16, 벵전 2:5, 엡 2:21-22.
 - D. 요한복음과 신약 전체에서 아버지의 집은 그리스도의 몸, 즉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이다 — 엡 1:22-23, 2:21-22, 딤후전 3:15-16.

IV. “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 요 14:2.

- A. 많은 거처는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지체들이다 — 롬 12:5, 고전 3:16-17.
- B.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건축물, 곧 아버지의 집 안에 있는 거처들이다. 이 건축물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거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 엡 1:22-23, 2:21-22, 5:30, 고전 12:27.

V.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겠습니다.”는 주님께서 한 곳을 예비하시고, 구속을 성취하시고, 길을 여시어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지를 마련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 요 14:2-3, 6.

- A. 죽음과 부활에 의해 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이끌릴 수 있도록 길을 내시고 한 곳을 예비하셨다 — 요 14:20.
- B. 죽음과 부활에 의해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입지를 예비하셨다 — 요 14:2-3, 6.
- C. 하나님 안에 입지를 갖는 것이 확대되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입지를 갖는 것이 되었다 — 롬 12:4-5, 엡 5:30, 고전 12:27.
- D.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 한 장소와 몸 안에 한 장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곳 안에서 살아야 한다 — 요 14:2-3, 20, 고전 12:27.

VI.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 요 15:4.

- A. 그리스도의 오심과 가심의 결과는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이다.
 - 1. 그리스도는 그분의 육체되심 안에서의 오심에 의해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끄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분의 가심에 의해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셨다 — 요 1:14, 14:20.
 - 2.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은 상호 거처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 B.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상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

VII.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 요 14:23.

- A. 여기서 우리는 상호 거처가 아버지와 아들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방문하심에 의해 건축된다는 것을 본다.
 - 1. 아버지와 아들께서 우리를 방문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건축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이다.
 - 2. 결국, 우리와 그분, 그분과 우리는 상호 거처가 된다 — 요 15:4.
- B. 삼일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과 함께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는 것은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시기 위한 것이다 — 엡 2:21-22.
 - 1. 오늘날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은 전적으로 요한복음 14 장 23 절에서 설명된 이러한 체험에 달려 있다.
 - 2. 이런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건축의 일을 하신다 — 마 16:18.